

# 포스코대우, 우즈벡 안질환 환자에 '밝은 세상'

### 현지 주민 1800여명에게 무상 의료지원

포스코대우가 우즈베키스탄 안질환 환자에게 밝은 세상 선물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종합병원에서 국제 실명구호 기구인 비전케어와 함께 안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캠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캠프 기간 동안 포스코대우는 백내장, 시력 저하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 1800여명에게 무상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그 중 1000여명에게는 무상 진료를 실시하고 150여명에게는 백내장 수술 등 안과 수술을 지원했다. 또 돋보기와 시력 교정용 안경 700여개를 제공했다.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이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에 자외선도 매우 강해 안질환 환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 회사 면방번호이 위치한 부하라 및 페르가나 지역에서 2014년부터 의료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은 총 1만여



포스코대우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종합병원에서 현지 안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캠프를 실시했다. /포스코대우

명에 이른다.

특히 매년 의료캠프에 분사 및 현지 법인 임직원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통역을 비롯 환자들의 진료와 안내를 돕고 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의

료지원뿐 아니라 아동교육센터 운영 지원, 무의탁 노인 및 고아원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현지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새로 나온 책

###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행비/안재성 지음



한국 근현대사의 숨겨진 인물과 진실을 발굴해 다수의 평전과 노동·역사 소설을 집필해온 작가 안재성의 신작 장편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가 출간됐다. 북한 노동당 청년간부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로 잡혀 10년간의 수용소, 감옥 생활을 겪은 실존인물 정찬우의 수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린다. 북한 엘리트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남한에서 전향한 정찬우는 남과 북 그 어디에도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에 대한 그의 증언은 보다 객관적이며, 이 소설은 초국적의 정찬우가 바라보는 전쟁의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찬우의 가족이 50년간 간직해온 수기를 우연한 기회에 입수하게 된 작가는 "지구상에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휴머니즘적 가치에 매료되어 소설화를 결심했다. 전쟁에서 비롯된 갈등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진 전쟁의 시대가 되어가는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묻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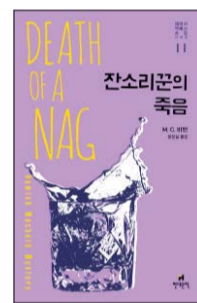
전쟁의 의미와 인간의 조건을 다시 묻는 절절한 기록.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어느 인간주의자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28쪽, 1만 45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 잔소리꾼의 죽음

현대문학/M.C.비턴 지음



스코틀랜드 북부에 자리한 가상의 시골 마을 로흐두의 유일한 경찰 해미시 맥베스의 좌충우돌 수사가 펼쳐지는 '해미시 맥베스 순경 시리즈 제 11권' '잔소리꾼의 죽음'이 현대문학에서 출간됐다. 전편에서 이별을 겪은 해미시가 상처를 치유하고자 떠난 휴가지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되며 위기를 맞은 가운데 또 한 번의 이별이 찾아온다. 서로를 의심하는 동시에 로맨스 구도를 형성하는 주인공과 주변 캐릭터들의 모습은 이 시리즈만의 재미를 선사한다.

320쪽, 98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 코웨이 신입사원과 시각장애 봉사활동 펼쳐



코웨이 신입사원들이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코웨이는 이혜선 대표이사와 신입사원 29명이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째 신입사원 입문교육 필수 과정으로 봉사활동

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날은 시각장애인 교육문화 지원 및 업무 보조 등에 나서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입력·검수하고 시각장애 근로자의 헤드폰 포장 조립 작업을 보조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 대표(왼쪽 두번째)가 신입사원들과 헤드폰 포장 조립을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신점[神占] 운세 3월 19일 (음 2월 3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72년생 고생 끝 좋은 일만 생기는 길입니다. 84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96년생 주관대로 밀고 나가세요.
- 소** 61년생 변화가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73년생 주변의 충고를 잘 받아 들이세요. 85년생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97년생 막힐수록 돌아가세요.
- 호랑이** 50년생 때를 기다려 보세요. 6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74년생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귀세요. 86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토끼** 51년생 말 조심, 행동 조심하세요. 63년생 자만 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75년생 질병에 주의하세요. 87년생 기회는 또 오니 걱정 마세요.
- 뱀** 52년생 초조해 할 것 없습니다. 64년생 허욕을 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76년생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88년생 다들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뱀** 53년생 오늘은 길한 날입니다. 65년생 약간 울적한 듯하지만 금세 기분이 전환됩니다. 77년생 마음이 안정되어 일에 집중이 잘됩니다. 89년생 거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말** 54년생 금전운도 있는 날입니다. 66년생 다음날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쉬운 날입니다. 78년생 상처를 입거나 귀한 물건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90년생 오늘 하루는 주의하세요.
- 양** 55년생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세요. 67년생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79년생 최악의 대흉일로 파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91년생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원숭이** 56년생 관용을 베풀면 좋습니다. 68년생 세상을 혼자만은 살수 없습니다. 80년생 협조자가 생기니 일 처리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92년생 만사가 수월해지고 행운 따릅니다.
- 닭** 57년생 친구간에 말 조심하세요. 69년생 집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81년생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93년생 행운이 가득한 하루를 보냅니다.
- 개** 58년생 경솔하면 손해만 따릅니다. 70년생 차근차근 계획하고 행동하세요. 82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94년생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 돼지** 59년생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71년생 요즘 어려우니 장황한 계획은 미루세요. 83년생 기회포착을 요령 있게 하세요. 95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친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3	9			7	4
	8		7		6
7		5	8		1
		6			
3					5
5	4			3	6
	6		4		7
		1	2		
1	9		8		3

		1	2	4	9	5
		5	3			
	4			6	8	1
7						4
	9	4	6			
	5					7
6	8	4			5	
			1	2		
5	9	2	8	1		

스도쿠 정답

2	8	7	9	8	2	5	6	1
8	6	9	2	5	1	4	7	3
5	2	1	4	6	7	3	9	8
9	1	4	2	6	8	7	2	5
6	5	8	7	1	2	3	4	9
1	7	2	5	9	4	8	1	6
1	2	6	8	4	5	9	7	3
4	9	5	6	1	7	8	2	3
4	9	5	6	1	7	8	2	3
2	9	1	7	4	5	8	6	3
5	6	7	2	3	8	1	9	4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 四季

### 영웅은 하늘이 내리는가?

필자는 가끔 생각한다. 역사를 통해 세기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 만약 알렉산더대왕이 서른 초반의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이 워털루전투에서 지지 않았더라면 세계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알렉산더대왕이나 나폴레옹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여러 해 동안 동로마 제국의 발칸 지방을 공포로 몰아넣은 훈족의 용맹한 지도자 아틸라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한 첫날 밤 죽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그 방향과 틀이 매우 달라져 있을 수 있었으리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보이지 않는 의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기울일 수 있는 선한 의지와 믿음, 그러한 신념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준다면 역사는 분명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었으리라 믿는다. 그러기에 주역의 모든 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길흉을 예시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천지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주역이라는 역서가 존재하는 의미인 것이다. 조화와 균형을 갖출 수 있을 때야 만물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웅호걸에 못지않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돕지 않고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도 없이 스러져 가거나 아니면 역적의 이름을 들으며 구족이 멸문하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남이장군 역시 출중한 가문을 배경으로 능력과 기량 뛰어났지만 역시 하늘 아래 두 용이 있을 수는 없는 법, 결국 역적무리로 낙인이 찍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용쟁호투에 있어서도 역성혁명이 될지 반역하는 역적이 될지도 모두 운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운기 역시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늘이 돕는 것이라 보기에 성공한 역모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오죽하면 진시황의 사후 혼란해진 천하를 평정할 것처럼 보였던 항우는 사면초가의 황망함을 겪은 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병사를 잘 쓰지 못한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항우의 한탄은 바로 하늘이 자신의 운을 돕지 않음을 탓한 것이다. 그러나 항우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자신의 힘과 기량만을 믿고 자만하여 덕으로 휘하를 다스리지 못한 것도 패인인 것을 후대의 사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칼이 지혜로 대치되는 문(文)을 이길 수 없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